

小商工人 創業에서 個人特性과 滿足度 및 財務的 成果間의 關係

朴 東 守*

〈目 次〉

- | | |
|-------------|------------|
| I. 序 論 | IV. 研究分析結果 |
| II. 心理學的 特性 | V. 結 論 |
| III. 研究方法 | |

I. 序 論

현대는 창업의 시대이다. IMF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들이 창업을 촉발시킴으로써 많은 크고 작은 사업체들이 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창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창업된 사업체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개발이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창업된 사업체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개인 자신이다. 창업자 개인은 창업 및 운영과정의 주체이자 활력 소인 것이다. 아마 사업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창업연구들이 창업자의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개인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업가와 비기업가 또는 관리자를 구별짓기 위한 속성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모아왔다. 이를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심리학적 경향 또는 동기부여적 성향의 기초에서 비기업가적 집단들로부터 기업가들을 차별화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특성연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Gartner, 1988, 1989). 이는 지금까지의 많은 특성연구들이 연구표본

*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의 가변성, 상이한 조작적 정의, 측정상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상이한 결과들을 도출함으로써 일관된 결과들을 얻지 못하였다는데서 비롯되었다(Johnson, 1990). 물론, Carland와 그의 동료들(1988)이 주장하듯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기업가적 특성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떤 이견도 제기되지 않지만 보다 유용한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Gartner(1985)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특성연구가 모든 기업가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가들간에도 그 특성변수들에 대한 많은 가변성은 염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가변성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속성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 데에서 어떤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지 뿐만 아니라 창업 및 창업된 사업을 수행해나가면서 얻어지는 성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심리학적 특성과 창업결과간 또는 이들 특성과 성공적인 기업가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이들 특성들은 보다 유용한 변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창업자의 심리학적 특성과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특성, 즉 성취욕구, 행동통제성향,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모호성수용 능력 등이 창업자의 사업만족도와 월매출액, 월순수익 및 투자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아마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들은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心理學的 特性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창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 창업자나 소유주인 동시에 경영자인 기업가의 역할이 사업체의 창업에서부터 그 사업체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은 성공적인 창업가 및 기업가들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성격특징으로서 성취욕구, 통제위치 및 위험감수성향 등과 같은 특성

들에 초점을 맞춰 왔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들 특성들이 필연적으로 비록 비기업가들로부터 기업가들을 구별짓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들 특성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Begley & Boyd, 1987 : Box, White & Barr, 1994 ; Gartner, 1985).

1. 성취욕구

지금까지 기업가적 창업에 대해 다양한 심리학적 특성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그 중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기업가적 특성이다. 실제 McClelland(1961)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성취욕구를 도입하면서부터 성공적인 기업가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탐색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래 성취동인의 현대적 의미는 Murray(1938)의 연구로부터 유래한다. 그는 “성취욕구는 어떤 것들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또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 물질적 사물, 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작하며 조직화하려는 바람,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바람,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바람,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바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바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바람”이 포함된다(Murray, 1938; p.164). 이러한 Murray의 연구가 McClelland(1955)의 성취욕구이론을 개발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McClelland(1961)는 성취욕구를 기업가적 행동과 경제적 성장에 관한 문제에 이론적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McClelland의 연구 아래 많은 연구들은 성취욕구를 기업가적 행동과 관련시켜왔다.

McClelland(1961)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소 어려운 성취목표를 수립하여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성과에 관한 명확한 피드백을 원하는 개인들로 특징지웠다. 즉,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개인들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및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것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에 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도전적이면서도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기를 즐기며,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과업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원한다.

McClelland(1961, 1965)는 여러 연구들을 걸쳐 이러한 특성들을 다른 집단들보다 특히 기업가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McClelland(1965)는 종단적 연구에서, 높은 성장욕구를 보였던 대학생이 졸업 10년 후 낮은 성장욕구를 보였던 이들보다 기업가적 직업에서 보다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후 많은 연구들은 비기업가적 집단보다 기업가들이 더욱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공하였다(Hornaday & Aboud, 1981 ; Johnson, 1990).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기업가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높은 성취지향성은 항상 주요 요소로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면, Komives(1972)는 높은 성취욕구가 성공적인 첨단 기술관련 기업가의 공통적 특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Smith와 Miner(1984)는 기업가의 성취지향적 성향과 그 회사의 성장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Begley와 Boyd(1987)는 성취욕구와 재무적 성과가 상호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Sineath와 Hand(1987)도 기업가적 사업의 모의실험게임에 참여한 35개 학생팀들을 비교함으로써 팀성과가 팀의 평균 성취욕구점수에 기초하여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높은 성과를 낸 팀들은 낮은 성과를 낸 팀들보다 높은 평균 성취욕구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성장욕구가 높은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수립된 높은 기준과 경쟁하며, 계속적으로 그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주하려한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주요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I : 성취욕구는 소상공인의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행동통제성향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차이를 보인다. Rotter(1966)는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라 불려지는 성격차원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그들 행동의 원인을 주로 그들 스스로에게나 또는 환경적 요인들에 귀착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성격특성은 행동패턴 상의 뚜렷한 차이, 즉 내재적 및 외재적 행동통제성향으로 구별된다.

내재적 통제위치를 가진 개인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결과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즉, 그들 자신의 행위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내재론자들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그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자질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자신이 부족한 탓으로 돌린다.

대조적으로, 외재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이 결과의 주요 결정요소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환경적 원인들이 대개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행위들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들 간에는 거의 연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재론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 거의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것들을 행운, 운명, 힘 있는 다른 사람 등과 같은,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를 넘어선 외부 세력들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외재적 통제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잘 수행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성과가 행운, 힘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또는 단순히 과업이 쉬웠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

Rotter(1966)는 내재적 통제위치가 높은 성취지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McClelland 및 그의 동료들(1953)은 높은 성취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그들 노력의 결과를 통제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McClelland(1961)도 개인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개인적 업적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각할 때 그 개인이 가장 많은 노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Rotter는 내재론적 신념을 지닌 개인들이 외재론적 신념을 지닌 개인들보다 성취를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후 Lao(1970)와 Brockhaus(1982)는 실제 내재론적 개인들이 보다 뚜렷한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취욕구와 내재적 통제위치 간의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업가들이 성취욕구뿐 아니라 내재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일반인들보다 기업가들이 보다 내재론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rockhaus, 1975 : Shapero, 1975). Borland(1974)는 내재적 통제위치가 성취욕구보다 기업가적 의도에 대해 더 좋은 예측치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내재적 통제 위치에 대해 기업가와 관리자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상충적인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몇몇 연구들은 기업가들이 관리자들보다 더 내재론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데 반해(Brockhaus, 1975 : Pandey & Tewary, 1979), 다른 몇몇 연구들은 내재적 통제위치에 대해 기업가와 관리자간에 어떤 유의한 차이도 없음을 지적하였다(Brockhaus & Nord, 1979 : Mescon & Montanari, 1981 : Sexton & Bowman, 1984).

이와같이, 초기 연구들은 통제위치를 기업가와 비기업가간을 구별짓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좀 더 발전된 연구들에서는 통제위치 점수들 간의 변이가 성공적인 기업가와 성공적이지 못한 기업가를 구별짓는 유용한 예측치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Begley & Boyd, 1987 : Sexton & Bowman, 1985). Brockhaus는 종단적 연구(1980)를 통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소유주로부터 1975년에 취득한 통제위치 자료를 이들 사업들의 성공률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1978년에도 여전히 종전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유주는 종전 사업을 그만둔 소유주보다 높은 내재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는 내재론적 신념이 사업체의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귀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공적인 노력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위치의 또 다른 측면은 내재론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수집과정이다(Sexton & Bowman, 1985). 결과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정보의 수집은 그 결과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지식의 증가가 불확실성 및 무력감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정보를 잘 얻는 사람이 그의 환경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행동할 수 있다. 내재론적인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식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내재론자는 사업체의 결과들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감으로 충만되고 자신의 사업에서 애착을 가지고 보다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극단적인 외재론적 성향은 비록 자신이 뛰어난 생각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일어나는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무력감과 소외를 경험케 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Ⅱ : 내재적 통제위치는 소상공인의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3. 위험감수성향

최근 기업가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들이 빠짐없이 위험감수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듯이,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은 지금까지 기업가의 특성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이다. 위험감수성향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향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즉, 개인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회를 취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리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본질적으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위험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위험감수성향은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보다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때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업가를 극단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또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Kuratko & Hodgetts, 1998). 이후 계속되는 연구에서도 기업가의 이러한 경향을 구체화시켰다 (Sexton & Bowman, 1983).

초기 몇몇 연구들은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관리자와 구별되는 기업가의 특성으로 간주했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기업가와 관리자간 위험감수성향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ockhaus, 1980 ; Sexton & Bowman, 1986). 성과측면에서 Brockhaus(1982)는 제약된 표본으로 인하여 시험적이기는 하지만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존 기업가들이 위험감수성향에 대한 상이한 프로파일에 의해 특정 지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Begley와 Boyd(1987)는 비록 과도하게 높은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창업자가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이를 얼마나 잘 조직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는 그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창업 및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Ⅲ : 위험감수성향은 소상공인의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모호성 수용능력

기업가의 또 다른 특성으로 모호성의 수용력이 포함될 수 있다. 모호성의 수용력은 개인이 모호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Sexton & Bowman, 1985). 개인들은 특정 상황을 구조화하기 위한 충분한 실마리들이 부족할 때 모호성을 지각한다. Budner(1962)에 따르면, 모호성은 생소함, 복잡성 등으로부터 나온다. 그는 모호한 상황들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으로 모호성의 불수용력을 정의하였다. 반대로, 모호성의 수용력은 그러한 상황들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모호성의 수용력은 연속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극단에서 모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모호한 상황에 의해 근심이 산출되고, 불수용적인 개인은 적절한 정보가 가장 적절한 반응에 이용될 수 있기 전에 어떤 반응들을 보인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호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의사결정자는 적절한 환경정보를 가지지 못한 체 문제해결에 접근한다. 모호성 수용력의 다른 극단에서는 모호성을 바람직하고 도전적인 목표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구조 아래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은 모호한 상황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Scheré(1982)는 모호성 수용력에 대해 기업가와 관리자를 시험하여 기업가가 관리자보다 더욱 높은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Sexton과 Bowman(1984)도 잠재적 기업가들을 잠재적 관리자들과 비교하여 이들 기업가들이 보다 높은 모호성 수용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기업가들은 변화하는 환경의 다양한 기회에 의해 활력을 얻는다. Gasse(1982)가 관

찰한 것과 같이, 기업가들은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모호성의 수용력이 동기부여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기업가의 사업에 대한 태도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IV : 모호성의 수용력은 소상공인의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研究方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앞 장에서 가설화된 기업가의 심리학적 특성과 기업가의 만족도 및 사업체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95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대구·경북지역 중 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은 도소매업 사업체로서 창업을 한 시기가 1년을 넘지 않는 사업체들이다.

본 연구조사는 이들 사업체의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5명의 조사원을 선발하여 연구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10일에 걸쳐 조사원들이 사전에 전화로 통화하여 조사가능여부를 묻고 이에 수락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

1) 심리학적 특성

본 연구는 심리학적 특성으로서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및 모호성의 수용력

을 핵심 연구변수로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성취욕구는 어떤 것들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램 또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Steers와 Braunstein(1976)의 Manifest Needs Questionnaire에서 성취욕구에 대한 3 문항을 발췌하여 측정되었다. 이들 척도들은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통제위치는 개인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그들 자신의 행위나 외부세력들에 기인시기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얼마나 많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척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Spector(1988)에 의해 개발된 척도에서 3 문항을 발췌하였고 이를 Likert의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개인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3 문항이 개발되었고,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모호성의 수용력은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Budner, 1962).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3 문항의 척도가 개발되었고,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2) 만족도

본 연구는 사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자신이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이 사업에 대해 보이는 전반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mmann과 그의 동료들(1983)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인 직무만족을 묻는 문항을 사업에 대한 문항으로 변환하여 구성하고 이를 Likert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재무적 성과

비록 사업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월 매출액, 월순수익 및 투자수익률을 조사하여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아마 이들 척도들은 도소매업의 사업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심리학적 특성과 기업가의 만족도 및 사업체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분석방법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를 측정하고 있는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그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수들간의 관련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가의 심리학적 특성과 기업가의 만족도 및 사업체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회귀분석은 연구변수들이 외의 요소들이 가설에서 설정된 변수들간의 관계에 잠재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연구변수들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서 3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 학력·성별·연령을 회귀분석에 적용시켰다. 이를 변수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다(Bird, 1993).

IV. 研究分析結果

1. 타당성 및 신뢰성검증

1)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이용한 판별 및 개념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즉, 이들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개별 척도로서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모호성의 수용력으로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수용성을 시험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또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5를 기준으로 그 유의성을 판단하였으며, 요인행렬의 회

전은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택하였다.

심리학적 특성과 관련된 4개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2개의 문항은 고유값이 1을 넘는 4개 요인으로 묶여졌다. 하지만, 이 요인들 중 두 요인에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3번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통제위치3(lc3)과 4번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호성의 수용력1(ta1)의 문항은 상이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의도와는 다른 요인에 묶여졌다. 하지만, 이들 문항들의 요인적재치에서 어떤 뚜렷한 패턴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된 요인에 대해서도 각기 0.20과 -0.09의 매우 낮은 적재치를 보임으로써 이들 문항들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두 문항이 제외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요인들이 제외됨에 따라 요인분석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 IV-1>과 같은 요인분석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 IV-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개의 문항은 고유값이 1을 넘는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표 IV-1> 연구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nach1		.774		
nach2		.838		
nach3		.691		
lc1				.491
lc2				.922
rtp1	.838			
rtp2	.895			
rtp3	.823			
ta2			.781	
ta3			.854	
고유값	2.396	1.945	1.655	1.142
설명변량	23.961	19.446	16.551	11.417

nach : 성취욕구, lc : 통제위치, rtp : 위험감수성향, ta : 모호성의 수용력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고유값은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냄으로 그 값이 큰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2.40에서 1.14에 이르는 다소 높은 고유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해 위험감수성향이 23.96%, 성취욕구가 19.45%, 모호성의 수용력이 16.55%, 그리고 통제위치가 11.42%를 설명하고 있다. 전체 4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71.38%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개념적 정의 및 척도에 기초하여 수립된 본 연구모형의 변수들이 거의 손실 없이 독자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2) 신뢰성 검증

Cronbach 알파계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내적 일치성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전체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연구변수와 1가지 결과변수 모두가 0.65에서 0.87에 이르는 내적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Cronbach 알파계수

변 수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 성향	모호성의 수용력	만족도
Cronbach Alpha	.76	.59	.87	.65	.69

2.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특성과 이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IV-3〉에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심리학적 특성변수들과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위험감수성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만족도와 유의하면서도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학적 특성변수들은 비록 위험감수성향과 월순수익간의 관계가 유의하면서도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 모든 재무적 성과변수들과는 어떤 유의한 상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특성변수들간에는 예측한 대로 성취욕구와 모호성간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면서도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과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만족도

는 어떤 재무적 성과변수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재무적 성과변수들 간에는 월매출액과 투자수익률을 제외하고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IV-3〉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상 관 관 계								
			1	2	3	4	5	6	7	8	9
1. 연령	38.49	8.27									
2. 학력	2.90	1.04	-.14								
3. 성취욕구	4.05	0.64	-.31**	.11							
4. 통제위치	3.71	0.65	.04	.19	.22*						
5. 위험감수성향	3.16	0.83	-.23*	.14	.40**	.28**					
6. 모호성의 수용력	3.03	0.77	-.13	.19	.09	.33**	.30**				
7. 만족도	3.83	0.62	-.02	-.05	.35*	.27**	.16	.14			
8. 월매출액수	194.92	197.87	-.12	.06	.12	.08	.15	.12	.11		
9. 월순수익	27.90	29.22	.03	.15	.13	.09	.25*	.04	.04	.45**	
10. 투자수익률	5.10	4.17	-.07	.21	-.01	-.15	-.03	-.03	-.01	.09	.47**

* p<0.05 ** p < 0.01

단위 : 월매출액, 월순수익 - 10만원; 투자수익율 - %

3. 가설검증

4가지 심리학적 특성변수와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변수들간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IV-4〉에서 제시되고 있다. 〈표 IV-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령, 성별 및 학력이 통제변수로서 회귀분석에 포함되었고, 4가지 심리학적 특성변수 모두가 연구변수로서 포함되었다. 앞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들 심리학적 특성변수들간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었을 때 결과변수에 대한 각 변수의 실제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V-4〉에서 β 는 회귀모형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얻어진 표준회귀계수를 가리키고, 그 계수에 대한 t값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 회귀모형의 R^2 와 조정된 R^2 가 제시되었다.

심리학적 특성변수들의 결과변수들에 대한 효과는 성취욕구가 만족도에 유의하면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어떤 연구변수들도 만족도나 재무적 성과변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예측변수들은 단지 직무만족에서만 $R^2=0.20$ 와 조정된 $R^2=0.13$ 으로 다소 높은 설명력을 가질 뿐 다른 결과변수들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R^2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단지 심리학적 특성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β 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록 만족도에서 통제위치 그리고 월순수익에서 위험감수성향이 유의수준 95%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90%에서는 유의함으로 이것에 대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취욕구와 내재적 통제위치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과 가설 II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고, 위험감수성향이 월순수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I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IV-4〉 회귀분석

결과변수 예측변수	만족도		월매출액		월순수익		투자수익률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변수												
연령	0.07	0.66	-0.09	-0.68	0.13	0.99	0.01	0.08				
성별	0.01	0.06	$R^2=$	-0.22	-1.71	$R^2=$	-0.04	-0.32	$R^2=$	-0.04	-0.30	$R^2=$
학력	-0.15	-1.45	0.20	0.04	0.35	0.10	0.16	1.30	0.10	0.24	1.85	0.08
연구변수												
성취욕구	0.35	3.10**	조정된	0.07	0.51	조정된	0.07	0.50	조정된	0.03	0.21	조정된
통제위치	0.21	1.82	$R^2=$	0.00	-0.03	$R^2=$	-0.04	-0.26	$R^2=$	-0.20	-1.39	$R^2=$
위험감수성향	0.00	-0.02	0.13	0.07	0.50	0.01	0.26	1.87	0.01	-0.02	-0.15	0.00
모호성수용력	0.05	0.46		0.05	0.34		-0.04	-0.27		-0.03	-0.21	

V. 結論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심리학적 특성변수가 사업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이를 변수들간의 관계를 시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성취욕구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내재적 통제위치도 만족도에 그리고 위험감수성향이 월순수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변수들에서는 어떤 효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심리학적 특성변수들, 특히 성취욕구와 내재적 통제위치는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개인들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개인들은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통제위치가 내재적 일수록 사업에 대해 보다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가가 개인의 육체적 및 심리적 안녕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작은 것일진 모르겠지만 즐거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안정 및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얼마나 즐겁게 운영해나갈 수 있느냐는 그 사업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학적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과연 누가 새롭게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특성을 배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비록 심리학적 특성변수들간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변수들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변수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에서는 성취욕구와 내재적 통제위치가, 그리고 월순 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서는 위험감수성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개인 특성변수들을 함께 창업과 관련된 현상들을 보다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는 것 자체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이를 얼마나 잘 조작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위험과 그에 따른 수익성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들 창업자들이 터무니없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내재적 통제위치와 위험감수성향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아 창업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산된 위험을 취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보이더라도 창업자가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여 극복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위험을 관리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극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과정과 분석결과를 통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앞으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창업관련 현상들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하지만, 창업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한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만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이 주로 창업을 한 지 6개월 미만의 사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을 하여 어느 정도의 재무적 성과를 올릴 만큼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업체들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를 다룰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표본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본 연구가 도소매업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다른 조직이나 환경에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한계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앞으로도 다양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Begley, T. M. & Boyd, D. P.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pp. 79-93.
- Bird, B. J. (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In J. A. Katz, & R. H. Brockhaus.(eds.),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pp. 11-48, Greenwich, CT: JAI Press.
- Box, T. M., White, M. A. & Barr, S. H. (1994), "A Contingency Model of New Manufacturing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2, pp. 31-45.

- Brockhaus, R. H. & Nord, W. R. (1979), "An Explor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Decision: Presonal Characteristics vs. Environmental Conditions," *Proceedings*, pp. 364-368, Atlanta, GA : Academy of Management.
- Brockhaus, R. H. (1975), "I-E Locus of Control Scores as Predictor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edings*, New Orleans: Academy of Management.
- Brockhaus, R. H. (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3, pp. 509-520.
- Brockhaus,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41-56,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udner, S.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Vol. 30, pp. 29-50.
- Cammann, C., Fichman, M., Jenkins, G. D. & Klesh, J. R. (1983), "Assessing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S. E. Seashore, E. E. Lqwler III, P.H. Mirvis & C. Cammann (Eds.), *Assessing Organizational Change: A Guide to Methods, Measures, and Practices*, pp. 71-138, New York : John Wiley & Sons.
- Carland, J. W., Hoy, F., & Carland, J. (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a Question Worth as Ask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2, No. 4, pp. 33-40.
- Gartner, W. B. (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pp. 696-706.
- Gartner, W. B. (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2, No. 4, pp. 11-32.
- Gartner, W. B. (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 Vol. 14, No. 1, pp. 27-38.
- Gasse, Y. (1982), "Elaborations on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57-6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rnaday, J. A. & Aboud, J. (1981),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Entrepreneurs," *Personnel Psychology*, Vol. 24, pp. 141-153.
- Johnson, B. R.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r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4, No. 3, pp. 39-54.
- Komives, J. (1972), "A Preliminary Study of the Personal Values of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In A.C. Cooper and J. Komives, (eds.), *Technical Entrepreneurship: A Symposium*, Milwaukee: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 Kuratko, D. F. & Hodgetts, R. M. (1998), *Entrepreneurship: A Contemporary Approach*, 4th ed., Fort Worth, TX : The Dryden Press.
- Lao, R.C.(1970),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Competent and Innovative Behavior among Negr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 McClelland, D. C. (1955), "Measuring Motivation in Phantasy: The Achievement Motive," In D. C. McClelland (ed.), *Studies in Motivation*, pp. 401-413,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 Van Nostrand.
- McClelland, D. C. (1965),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 pp. 389-392.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 (1953),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Mescon, T. S. & Montanari, J. R. (1981), "The Personalities of Independent and Franchise Entrepreneurs," *Proceedings*, pp. 413-417, San Diego :

- Academy of Management.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Pandey, J. & Tewary, N. B. (1979), "Locus of control and Achievement Values of Entrepreneu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2, pp. 107-11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80, No. 1, pp. 1-28.
- Scheré, J. L. (1982), "Tolerance of Ambiguity as a Discriminating Variable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Management*, pp. 404-408.
- Sexton, D. L. & Bowman, N. (1983), "Comparative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of Students: Preliminary Results," In J. A. Hornaday, J. A. Timmons & K. H.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213-232, Wellesley, MA : Babson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
- Sexton, D. L. & Bowman, N. (1984), "The Effects of Preexist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New Venture Initiations," *Presented at the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Boston, MA.
- Sexton, D. L. & Bowman, N. (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 pp. 129-140.
- Sexton, D. L. & Bowman, N. (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ies, In R. Ronstadt, J. A. Hornaday, R. Peterson & K. H.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40-51, Wellesley, MA: Babson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
- Sineath, W. P., III & Hand, H. H. (1987), "Creativity, Entrepreneurship,

- Strategy, and Performance: A Preliminary Study," *Southern Management Association Proceedings*, pp. 229-231, Atlanta, GA.
- Smith, N. R. & Miner, J. B. (1984), "Motiv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Entrepreneurs," In J. A. Hornaday, F. Tarpley, J. A. Timmons, & K. H.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488-495, Wellesley, MA : Babson Center for Entrepreneurship Studies.
- Spector, P. E. (1988), "Development of the work locus of control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1, pp. 335-340.
- Steers, R. M. & Braunstein, D. N. (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pp. 251-266.